

정당공천 폐지...여 “위헌여부 묻자” 아 “TV토론하자”

황우여 “여야 공동 유권해석 의뢰...결론 따르자” 전병헌 “대선공약 안 지키려는 ‘물타기’ 의도”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문제를 놓고 여야 간 공방이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새누리당이 위헌 여부에 대해 유권해석을 의뢰하자고 제안하자 민주당은 이를 거부하고 TV토론을 제안했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23일 “공천 금지가 위헌인지에 관해 유권해석을 내릴 수 있는 여러 기관이 있는데 여야가 공동으로 유권해석을 의뢰한 뒤 그들의 조언에 따라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이같이 밝힌 뒤 “지방선거에 임박해 공천 포기 위한 시비가 일고, 결국 헌법재판소 패소와 가처분 등으로 정국이 마비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혹여 정쟁으로 인해 공천개혁이 아무런 진전을 보지 못한다면 당리당략 때문에 왜곡된 내용에 합의한다면 국민이 좌시하지 않을 것이고 민주당의 발전도 놓칠 것”이라면서 “새누리당은 1월 안에 자체 공천개혁안을 매듭지을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 여야 지도부가 이 문제에 대해 공개적으로 TV토론을 하자고 새누리당에 제안했다.

또 전 원내대표는 국회 의원총회에서 “정당공천 약속을 지연시키고 물타기 하려는 교활한 꼼수”라며 “지나해 이미 국회 정치

와 규탄대회를 잇따라 열어 집중 성토했다.

정계특위 민주당 간사인 백재현 의원은 의원총회에서 “(새누리당의) 정계특위 임명은 기만적인 태도다. 집권여당의 의무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원 50여명은 의총 후 국회 본청 앞에서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를 위한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성명사에서 “대통령이 침묵으로 일관한 채 공약파기를 사주하고 있고, 새누리당은 정계특위에 넘기는 꼼수로 책임회피에 골몰하고 있다”면서 “비겁하고 졸렬한 행태로 국민의 심판은 준엄

하고 혹독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국회 정치개혁특위 지방선거관련 법소위는 이날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문제에 대한 논의를 계속했지만 팽팽한 이견으로 헛바퀴만 돌았다.

새누리당은 전남 의원총회 논의를 바탕으로 정당공천 유지의 불가피성을 거듭 강조했고 민주당은 새누리당이 끝내 정당공천을 유지할 경우 오는 6·4지방선거에서 단독으로 정당공천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배수의 진까지 치며 압박을 계속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박근혜 - 새누리당 정권은

김한길 민주당 대표, 전병헌 원내대표 등 민주당 의원과 당직자들이 23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 폐지 대선공약 이행 촉구 시민행동 집회’를 열어 구호를 외치고 있다.

광주시교육감 진보진영 후보 단일화 가시화

범시민 단일후보 추대위 내달 15일 구성...방식·절차 놓고 진통 예고

광주시교육감 선거가 4개월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후보 단일화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

23일 광주지역 교육계에 따르면 광주교육희망네트워크는 전교조 출신을 중심으로 진보진영의 범시민후보 단일화를 위한 추대위원회를 다음달 15일까지 구성하기로 했다. 네트워크는 현재 추대위를 꾸리기 위한 준비위 구성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추대위가 구성되면 후보단일화 대상과 선전 절차 등을 결정해 다음달 말까지 단일후보를 결정할 방침이다.

네트워크는 광주지역 70여개 교육·시민사회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추대위 구성에는 공정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 비교육단체인 진보연대·민주노총 등은 제외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후보단일화 우선 대상은 장휘국 현 교육감과 정치

권·윤봉근 광주시의원 등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후보진영 간 단일화 방식과 절차에 대한 입장차가 커 진통이 우려된다.

장휘국 교육감 측은 “시민사회 결정에 따르겠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지만 당선가능성을 고려해 ‘재추대’를 바라고 있다. 반면, 윤봉근 의원은 “장 교육감이 후보가 되면 필패한다”며 출마 포기를 요구하고 있다. 정희곤 의원은 “교육전문가, 학생·학부모, 후보자 간 3차례 공개토론회를 거쳐 단일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비전교조 진영에서도 후보 단일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전교조 진영에 맞서려면 비전교조 진영도 단일화해야 하는데 공감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기에 대해서는 각자 활동을 하다가 3~4개월째 단일화하자는 의견이 많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김보현 의원



문상필 의원



서정성 의원



기도서 의원

김보현·문상필·서정성·기도서 의원 ‘우수상’

‘대한민국 위민의정 대상’ 시상

광주시의회 김보현(무·서구 2)·문상필(민주·북구 3)·서정성(무·남구 3) 의원과 전남도의회 기도서(민주·순천 4) 의원이 23일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제2회 대한민국 위민의정 대상’ 시상식에서 개인부문 우수상을 받았다.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이하 협의회)가 주최하는 ‘제2회 대한민국 위민의정 대상’은 4년마다 우수의정활동 사례를 공모해 시상하는 제도다.

이날 시상식에서 문상필·서정성 의원은 자치법규 분야에서, 김보현 의원은 정책연구분야에서 각각 우수상을 수상했다. 협의회는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접수된 100건(개인 96, 단체 4)을 대상으로 학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통해 서류심사와 면접, 현장실사 등을 거쳐 전국 시·도의원 중 35명의 의원과 2개 단체를 선정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6·4 지방선거 현장

이석형 전 함평군수 전남지사 출마 선언

‘안철수 신당’ 전남도지사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이석형 전 함평군수가 23일 전남도지사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이 전 군수는 이날 전남도의회 회의실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하고 “낡은 정치가 전남의 잠재력을 저하하고 전남 발전을 위한 성장동력을 잃게 하였다”며 “새 정치를 실천, 역동하는 전남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사부터 새정치의 시작을 함께 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승희 전 교육국장 전남교육감 출마 선언

김승희 전 전남도교육청 교육국장이 23일 전남도교육감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김 전 국장은 이날 전남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학생의 꿈과 희망을 이룰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바치겠다”고 밝혔다.

김 전 국장은 “교육감을 잘못 선출하면 아이들 수십 년 장래를 망치게 된다”며 “전남교육은 수능성적이 3년 연속 하락하고 청렴도 평가가 하위, 우수학생 유출 등으로 위기에 봉착해 있는 만큼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기주도적 인재 육성이란 교육철학을 바탕으로 학생 개인의 소질과 적성을 키워주는 행복교육을 펼치겠다”고 강조했다. 영암 출신으로 서울대를 졸업했으며, 1976년 진상중 교사로 시작해 장학사, 장학관, 교감·교장, 중등교육과장, 교육국장, 전남교육연구정보원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 동신대 교육대학원 초빙 교수로 활동하고 있다.

주철현 변호사 여수시장 출마 선언

‘안철수 신당’ 여수시장 후보로 거론되는 주철현 변호사가 23일 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주 변호사는 이날 여수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의 열정과 잠재력을 결집하고 활력을 불어넣어 여수를 ‘성장도시’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광주지검장을 지낸 그는 “지난 35년간 공직생활에서 배운 경험과 역량을 토대로 ‘사



람 중심의 행복한 여수’를 만드는 데 나 머저 인생을 바치겠다”며 “안철수 의원과 함께 기존 정지권을 개혁하고 국민이 신뢰하는 정치를 구현하는 데 작은 힘이 되겠다”고 말했다.

허남석 곡성군수 27일 출판기념회

허남석 곡성군수가 오는 27일 곡성 섬진강 기차마을 로즈홀에서 자서전 ‘부자 곡성의 희망’ 출판 기념회를 연다.

허 군수는 이 책에 자신의 성장 과정과 지난 4년간의 군정 운영, 향후 곡성의 나아갈 방향 등을 소개했다. 어린시절 가난 속에서 좌절하지 않고,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한 과정과 9급 공무원



시절 경찰 간부후보생 수석 합격을 한 과정 등을 담았다. 또 민선 5기 곡성 군수에 취임해 겪은 일화

이기병 전남도의원 출판기념회 성료

지방선거 나주시장 출마 예상자로 거론되고 있는 전남도의회 이기병 의원이 23일 나주문화예술회관에서 출판기념회를 열었다.

책에는 이 의원의 의정활동과 성장과정, 정치 입문 일화 등을 비롯해 자신이 구상한 나주 발전 전략 등을 담았다.

또 직접 발품을 팔아 나주 곳곳을 돌며 눈에 담고 느낀 점 등도 풀어냈다. 이를 통해 나주의 가능성을 진단하고 문제점 등도 결



들었다. 이 의원은 “주민들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지역 발전을 위한 각오를 책에 담았다”고 말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2월10일 마감예정

학원생 모집

강의과목
사주·자미두수
육효·풍수지리
기초부터 고급까지!!

· 육십갑자 해설 · 자미두수대전
· 질적이고 질서는 사주학의 저자가 직접강의

각종생활상담
직업·사업·공합·택일·개업

풍수지리 출장감정
상담·소개도 가능

화원역학연구원

광주광역시 북구 임동 92-83

문의전화 062)527-0755

본원 010-5116-0766

높은 대출금리의 벽 앞으로의 금융, 실험이 바뀝니다.



대출한도 최대
25억원

- 아파트 / 상가 / 원룸 / 내대지 보증금 / 차방 등 모든 담보가능!
- 특례보증 / 햇살론 대출지원!
- 신용대출 - 직장인 / 자영업자 우대!

광주원광신협

| 공동본점 | 227-4474
| 금호지점 | 383-4474
| 풍암지점 | 653-4474

公告

利川徐氏 尙書公 大同譜 編纂

(이천서씨 상서공감무공 대동보 편찬)

壬子譜 (1972년 발간) 이후
42년 만에
대동보를 편찬 합니다

1. 책으로 된 대동보는 이번이 마지막이오니 후손들은 빠짐없이 참여 바랍니다.
2. 2011년말부터 공고(홍보)를 하였으며 2014년 3월 30일 수단 접수를 마감 합니다.
3. 아직까지 접수 못 한 종친에게 널리 알려 편찬에 적극 참여토록 협조바랍니다.

兵部尙書公 編纂事務所

서울 TEL. 02-793-8252 FAX 02-795-1831
광주 TEL. 062-672-2002 FAX 062-672-2001

도대체 스피치 말을 어떻게 잘 할수 있을까?

http://www.kleader.kr

초·중·고·대학생 등을 위한
학생부 스피치 교육

어머니 스피치 교실
내가 말을 잘하면 내 지식도 말을 잘한다

취업을 맞출 지원하는
면접 준비 실전과정

성공을 부르는 말하기 기술
스피치 리더쉽 과정

명강사 육성과정
경의 스피치를 배워서 강사활동을 하실 분

강사 파견 업무
각 분야별 명강사를 파견해 드립니다.

한국스피치리더십교육원

전화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문을 우송하여 드립니다.